베를린의 일본 음악유학생 연구

1920~1930년대를 중심으로 *

이경분

1. 들어가며

일본 제국시대에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일본 유학생이 ‘서양음악’을 배우러 독일로 간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몇몇 유명한 음악가에 관한 연구를 제외하면 무명 음악가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은 연구된 적이 없다. 물론 당시 베를린대학(Friedrich - Wilhelm - Universität)의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연구

이경분(李京粉) 독일 마르부르크(Marburg) 대학에서 「망명음악연구」로 음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음악과 정치, 음악과 사회 등 음악학의 학제적인 연구와 문화로서의 음악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서울대, 한양대, 한예종 강사 및 도쿄대학 객원연구원을 거쳐서 현재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프로파간다와 음악』, 『잃어버린 시간 1938~1944(안익태)』, 『전후 일본, 그리고 낯선 동아시아』(공저) 및 논문으로 「일본로포수용소에서의 음악과 평화」, 「〈기미가요〉와 일본우익」, 「독일제국권에서 일본제국권으로 온 망명음악가 연구」, 「Japanese Musicians Between Music and Politics During WWII: Japanese Propaganda in the Third Reich」 등이 있다.

* 본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2013S1A5A2A01014608).

소'(Deutsches Institut für Ausländer)의 문서를 중심으로 베를린의 일본 유학생 전체를 조사한 단행본 『베를린대학의 일본학생들 1920~1945』가 있다.¹ 하지만 이 자료에는 베를린에서 ‘음악’을 공부한 일본유학생에 관해서는 제대로 분석되지 않고, 언급되더라도 불충분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일본학계의 연구 성과로서) 가토 데쓰로(加藤哲郎)의 『바이마르공화국의 ‘양행’ 일본인』이 출판된 바 있지만 여기에서도 ‘음악유학생’은 거의 다루지 않았다.² 그나마 『언어도시 베를린: 1861~1945』에서는 일본 음악유학생이 꽤 비중을 차지한다.³ 이 책에서는 철학, 음악, 사상, 문학, 건축학, 연극, 사진, 영화 등 각 분야에 걸쳐 일본인의 베를린 경험을 짧게 언급하고 있다. 이 책에서 음악은 철학 다음으로 언급되지만, 유학 경험자의 피상적인 인상을 수필 형식으로 서술하는 수준에 그친다.

물론 독일 유학을 경험한 유명한 일본 음악인 개인의 회고록이나 신문·잡지기사, 에세이 등은 적지 않다. 대다수 음악인이 베를린 또는 빈에서 유학을 했으므로, 이들에 관한 개별적인 연구에서 베를린 유학 시기에 관해 자세하게 언급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예를 들면, 아마다 고사쿠(山田耕筰), 오구라 스에코(小倉末子), 고노에 히데마로(近衛秀麿), 모로이 사부로(諸井三郎), 기시 고이치(貴志康一), 야나기 가네코(柳兼子) 등 일본 근대음악사의 중요한 음악가들의 삶과 베를린 유학 시절이 에피소드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다.⁴

1 Rudolf Hartmann, *Japanische Studenten an der Berliner Universität 1920-1945*, Mori Ogai Gedenkstätte der Humboldt Universität, 2003. 이 책에는 독일어연구소의 어학 코스에 등록된 일본인 목록이 자료로 들어 있다. 이 어학 코스는 독일어, 독일 문화강좌로 8~10주간 코스로 매년 겨울(11월 중순), 가을(9월 초), 부활절(2월 중순) 3회 개최한다(여름방학 코스는 따로 개최됨). 문화적으로 박물관 방문, 견학, 독일어 시험 준비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 이 책은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바이마르 시기 좌파 일본유학생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다. 加藤哲郎, 『ワイマール共和国の「洋行」日本人』, 岩波書房, 2008.

3 和田博文 外, 『言語都市・ベルリン: 1861~1945』, 藤原書店, 2006.

4 津上智実, 「『神戸女学院仕込み』のピアニスト小倉末子」, 『Studies』 58(2), 2011, 113~128쪽; 大野芳, 『近衛秀麿: 日本のオーケストラをつくった男』, 講談社, 2006; 秋岡陽, 『山田耕筰と日本の初期オケストラ運動』(1), *Ferris Studies*, College of Music 2, 1997, 70~90쪽; 後藤暢子, 『山田耕筰: 作るのではなく生む』, ミネルヴァ書房, 2014; 滝田善子, 「第2次世界大戦後のわが国音楽教育をめぐる考察(2)諸井三郎の音楽・音楽教育観」, 『頌栄短期大学研究紀要』 39, 2012, 11~23쪽; 酒井健太郎, 「音楽における ‘近代の超克’: 諸井三郎の ‘近代’ 観念」, 『研究紀要』 29, 2010, 27~36쪽; 仲万美子·三島郁, 「ベルリンの聴衆に届けられた「日

이러한 연구 상황에서 본 논문은 아카이브의 일차 자료를 통해 일본 제국시대에 베를린에서 유학한 일본의 음악인에 대한 대략의 윤곽을 그려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일본 음악유학생을 연구하는 목적은 현재 일본 음악계에 두드러지게 남아 있는 독일 음악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서 음악유학생들이 연결하는 일본과 독일 제국의 회로를 고찰하는 것이다.

먼저, 일본 음악유학생의 규모나 특징이 어떤 범위 내에서 형성된 것인지 알기 위해, 1920~1930년대 베를린으로 간 일본 유학생의 분위기를 탐색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독일의 음악교육기관에 대한 이해 없이 유학생의 존재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당시 대표적인 베를린 음악교육기관에 대하여 살펴보고,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언제 공부했는지 베를린 예술대학(Universität der Künste Berlin)에 소장되어 있는 아카이브 자료(*Jahresbericht*)와 현재 베를린 훔볼트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연구소'(DIA, 이하 독일어 연구소라 함)의 문서를 바탕으로 서술하고자 한다.⁵ 많은 학생들이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 출신이었지만, 효고현, 아이치현, 아오야마 등 지방 출신도 있었다. 이들 중 일본으로 망명한 독일어권 음악가들의 제자들도 있었다. 망명음악가들의 영향으로 다수의 일본 제자들이 독일로 유학 갔다면 '독일 → 일본 → 독일 → 일본'의 회로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本の西洋音楽; 貴志康一の考える「日本音楽」, 編み出した「西洋音楽」, 『同志社女子大学 総合文化研究所 紀要』22, 2005, 145~164쪽; 梶野絵奈, 『貴志康一と音楽の近代: ベルリン・フィルを指揮した日本人』, 青弓社, 2011; 小池静子, 『柳宗悦を支えて: 声楽と民藝の母・柳兼子の生涯』, 現代書館, 2009; 松橋桂子, 『楳書の絶唱 柳兼子』, 水曜社, 2003 등이 있다.

- 5 여기서 베를린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독일에는 수많은 유명 음악학교가 있었지만, 베를린이 일본 음악유학생 대다수가 거처한 '음악의 메카' 같은 곳이기 때문이다. 본고의 일차 자료는 베를린 예술대학 아카이브에 보존되어 있는 1) Stern'sches Konservatorium der Musik: *Jahresbericht über 75. Schuljahr 1924/1925; Jahresbericht über 76. Schuljahr 1925/1926; Jahresbericht über 77. Schuljahr 1926/1927; Jahresbericht über 78. Schuljahr 1927/1928; Jahresbericht über 79. Schuljahr 1928/1929; Jahresbericht über 80. Schuljahr 1929/1930.* 2) Staatliche Akademische Hochschule für Musik in Berlin: *Jahresbericht der Staatliche Akademischen Hochschule für Musik in Berlin 1918-1925* (Bestand 1, D6); *Jahresbericht der Staatliche Akademischen Hochschule für Musik in Berlin 1932/33* (Bestand 1, D13); *Jahresbericht der Staatliche Akademischen Hochschule für Musik in Berlin 1933/34-1938* (Bestand 1, D14); *Jahresbericht der Staatliche Akademischen Hochschule für Musik in Berlin 1938-1941* (Bestand 1, D19)임.

2. 1920~1930년대 베를린으로 간 일본 유학생

1) 일본 유학생 일반에 관하여

일본 정부는 제1차 대전 시기에도 장학생을 선발했는데, 1915년 25명, 1916년 33명, 1917년 45명, 1918년 60명이었다. <표 1>에서 보듯이 제1차 대전이 끝난 후에는 전쟁으로 막혀 있던 독일 유학이 재개되어 1919년 문부성 선발 유학생이 110명이던 것이 1922년에 208명으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한다.

하지만, <표 1>에서처럼 1930년 유학생 파견 수(32명)가 1929년(113명)에 비해 약 1/4로 갑자기 떨어지는데, 이는 제1차 대전 중(1916년)의 수준이다. 그 이유를 가토 데쓰로는 1930년대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⁶ 1931년 만주사변, 1933년 일본의 국제연맹 탈퇴로 인해 일본이 1930년대에 국제적으로 고립되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1930년 32명에서 1931년 110명, 1932년 93명으로 세 배 정도 증가한 것을 보면, 1930년 한 해의 급격한 유학생 감소는 일본의 국제적 고립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1930년의 유학생 급감은 1929년의 세계대공황이라는 경제적 충격의 결과가 1930년에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만주사변이나 국제연맹탈퇴 전이던 1930년만 보면 정치적 문제보다 오히려 대공황이라는 경제적 측면이 더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문부성 장학금 파견 유학생 총계(1919~1932)

연도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유학생 수	110	129	174	208	154	138	163	165	178	158	113	32	110	93

출처: 加藤哲郎, 『ワイマール共和国の「洋行」日本人』, 岩波書房, 2008, 26~27쪽.

6 加藤哲郎, 『ワイマール共和国の「洋行」日本人』, 27쪽.

2) 1920~1930년대 일본 유학생의 독일 선호

제1차 대전 이전 문부성 파견 장학생이 선호한 나라는 독일 40.6%, 영국 21.2%, 미국 16.5% 순이었다.⁷ 1920~1930년대에는 독일을 더 선호했다.⁸ 차이가 있다면 영국 대신 미국의 선호도가 매우 높아진 것이다. <표 2>는 1931년 3월 31일 일본 문부성 재외연구원(총 219명)이 선호한 나라별 통계(在留國別頻度順リスト)다. 장학생 수는 복수의 나라에서 체재한 빈도 수다.

독일어연구소(DIA)에 등록된 일본인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루돌프 하르트만(Rudolf Hartmann)의 연구에 따르면, 1925년부터 1945년까지 베를린에 체류한 일본학생 수는 약 1500명에 달한다고 한다.⁹ 베를린 유학생 중 대부분의 일본인이 이 연구소에서 독일어 코스를 밟았으므로 이 문서를 통해 대략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독일어 코스를 밟지 않은 유학생들도 있었으므로, 일본 유학생의 수는 그 이상이었으리라 추측된다.

일본 유학생의 대부분이 독일의 도시 중에서도 베를린에서 유학했던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음악을 전공하는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어 나타난다.¹⁰ 그 외 모차르트, 베토벤, 하이든, 브람스 등 유명한 음악

<표 2> 문부성 재외연구원(총 219명)이 선호한 나라별 통계(1931. 3. 31)

유학 국가	독일	미국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그리스	아르헨티나
장학생 수	175	149	72	48	24	6	6	5	4
퍼센트	80	68	33	22	11	3	3	2	2
유학 국가	스웨덴	러시아	중국	덴마크	노르웨이	터키	포르투갈	그외	
장학생 수	3	3	2	2	2	2	2	7	
퍼센트	1	1	1	1	1	1	1	3	

출처: 和田博文 外, 『言語都市・ベルリン: 1861~1945』, 12쪽 재인용.

7 辻直人, 『近代日本海外留学の目的変容: 文部省留學生の派遣実態について』, 東信堂, 2010, 50쪽.

8 제1차 대전 전과 비교했을 때, 1920년대는 전쟁으로 끊어졌던 일본과 독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독일로 향한 일본 유학생의 수는 증가했다. 加藤哲郎, 『ワイマール共和国の「洋行」日本人』, 26쪽.

9 Rudolf Hartmann, *Japanische Studenten an der Berliner Universität 1920-1945*, p. 4.

10 야마다 고사쿠와 오구라 스에코를 비롯한 1910년대 일본의 음악대가뿐 아니라, 본 논문의 <표 3>부터 <표 6>까지에서 언급된 모로이 사부로, 기시 코이치, 사이토 히데오, 오쿠다 료조, 그리고 표에는 없지만 고노에 히데마로, 야나기 가네코, 가네쓰네 기요쓰케(兼常清佐) 등 일본의 쟁쟁한 음악가들은 거의 베를린에서 유학했다.

가들이 활동했던 빈과 바흐와 멘델스존의 도시로 알려진 라이프치히가 일본 음악유학생에게 매력적인 도시였다.

3. '독일 음악'에의 동경

일본의 음악대부라고 할 수 있고, 대표적인 해외유학파인 야마다 고사쿠가 그랬듯이 메이지 시기 일본 음악인들이 독일어권 유학을 선호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첫째, 무엇보다도 19세기 유럽에서 '독일 음악'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던 것을 들 수 있다. 모차르트, 하이든, 베토벤, 슈베르트, 슈만, 브람스, 바그너 등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음악가들이 19세기 독일어권에서 한꺼번에 배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은 단지 일본 음악유학생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외국 음악유학생들이 꼭 가보기를 희망했던 음악의 메카였다. 베를린의 음악교육기관에는 러시아, 동유럽은 물론이고 핀란드, 터키 학생들의 기록도 보인다.¹¹

둘째, 메이지 시기부터 일본의 음악교육기관에 유능한 독일 음악교사들이 포진해 있었던 것도 중요한 이유다. 그 대표적인 예가 1888년 빈에서 초빙된 디트리히(Rudolf Dittich)였는데, 그는 일본에 최초로 초청된 전문음악가였다. 디트리히의 엄격한 훈련으로 일본의 최초 관립음악교육기관이던 음악취조과(音樂取調掛)는 예술 음악의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디트리히의 후임인 아우구스트 융커(August Junker), 라파엘 폰 쾨벨(Raphael von Koebel), 하인리히 베르크마이스터(Heinrich Werkmeister) 등과 같이 독일인 및 독일에서 교육받고 활동했던 독일 음악가들은 음악취조과와 이후 명칭이 변경되는 도쿄음악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했다.¹²

11 베를린 예술대학의 아카이브에 보존되어 있는 문서(53. *Jahresbericht der Staatliche Akademischen Hochschule für Musik in Berlin 1931/32*, p. 55) 참조.

12 김지선, 「근대시기 일본의 음악학교에 유학한 조선인: 도쿄음악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음악

셋째, (첫째와 둘째 이유와 연동되어) 일본의 음악학교에서 독일 음악의 영향력이 막강하여, 독일 음악 전통과 독일 음악단체, 독일 음악교육기관이 일본에서 서양음악의 모범, 또는 ‘오리지널’이라는 인증마크와 같이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음악계의 통념은 독일 유학이 사회적 인정과 직업적 성공으로 보답되리라는 기대를 낳았고, 동시에 일본 음악인들의 독일 음악에 대한 선망과 동경을 불러일으켰다.¹³ 독일에서 유학한 일본 음악가는 귀국 후, 일본 음악계에서도 권위를 가지게 되어, 제자들의 독일 유학에의 동경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낳았다. 마치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이 유학을 통해 일본의 근대화된 교육제도를 경험하고 귀국한 후,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의 동경과 부러움을 얻게 되고, 이는 다시 일본 제국 문화에 대한 동경과 희망을 뿌리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¹⁴ 서양음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보면, 독일은 중주국, 일본은 식민지 조선과 비슷한 처지가 되는 것이다. 즉 서양음악의 본고장 독일에서 피아노나 바이올린, 성악 등을 공부한 일본 음악가는 귀국한 후, ‘고급 타이틀’의 소유자로 인정받으면서 제자들을 교육하며, ‘독일 음악에의 숭배’에 가까운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냈다.¹⁵

참고로 혼돈을 피하기 위해 ‘독일 음악’과 ‘빈’의 관계에 대해 짧게 언급하고자 한다. 독일 음악이라는 용어는 일차적으로 바흐, 모차르트, 하이든, 베토벤, 바그너, 브람스와 같은 독일어권 음악가들의 음악을 떠올리게 한다.

사학보』 41권, 2008, 166~168쪽.

13 이러한 일본 음악인들의 독일에의 절대적인 숭배는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Levi Mclaughlin, "Faith and Practice Bringing Religion, Music and Beethoven to life in Soka Gakkai," *Social Science Japan Journal* 6(2), 2003, pp. 175~176. 하지만 구노 히사코(久野久子, 1886~1925)처럼 1923년 문부성 장학생으로 베를린을 거쳐, 빈에서 유학하는 동안 에밀 폰 자우어(Emil von Sauer)에게 피아노를 배웠지만, 정신적 어려움으로 자살을 시도한 경우도 있다.

14 박선미, 『근대여성, 제국을 거쳐 조선으로 회유하다: 식민지 문화지배와 일본유학』, 창비, 2005, 12~13쪽.

15 이러한 ‘독일음악숭배’ 현상에는 무엇보다도 일본지식층의 바그너 수용이 크게 기여했다. 바그너의 음악은 당시 일본에서 연주가 거의 되지 않았지만, 일본의 문학자, 지식인 사이에서는 일본어로 번역된 바그너에 관한 책들과 바그너가 집필한 책들이 음악을 접하기 전부터 일본의 서양음악 애호가들을 사로잡았다. Toru Takenaka, "Wagner-Boom in Meiji-Japan," *Archiv für Musikwissenschaft* 62(1), 2005, pp. 13~31.

19세기는 독일 내에 여전히 수많은 군주국의 경계가 있었고, 현재의 ‘국민국가’적 개념이 정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음악사적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구분이 없었고, 두 나라 모두 ‘독일음악’의 요람으로 이해되었다. 19세기에는 모차르트를 비롯하여 독일어권 음악가는 거의 빈에 모여 있었을 정도로 빈은 독일음악의 중심지였다. 하지만 민족주의의 부상 및 국민국가의 형성 그리고 제1차 대전 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몰락으로 오스트리아는 700만 인구의 작은 공화국으로 축소되면서, 19세기의 독보적인 음악도시 빈의 영광도 점차 퇴색되어갔다. 이와 대조적으로, 제1차 대전의 패배 후 성립된 바이마르 공화국(인구 약 6,200만 명)의 거대도시 베를린은 문화 예술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로 인해 점차 빈을 능가하는 유럽 음악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이러한 경향은 나치제국 시기에 확고하게 자리잡게 된다.

4. 베를린의 음악교육기관

베를린 유학을 했던 일본 음악가의 회고록이나 기사뿐만 아니라 일본학계의 연구서에도 Hochschule für Musik(이하 뮤직호흐슐레)를 베를린음악학교, 왕립음악학교, 제립고등음악원, 베를린 국립고등음악원, 국립예술대 등 제각각으로 번역해서 실제 어떤 기관인지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혼동은 베를린에 음악교육기관이 여러 개 있었을 뿐 아니라, 시대가 바뀌면서 여러 차례 명칭을 변경한 것도 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음악가를 총망라한 『음악가 인명사전』(音樂家人名事典)에서도 베를린 유학을 한 음악가의 경우, 정확한 교육기관을 알기 힘들 정도로 명칭이 일관성 없이 기록되어 있다.¹⁶ 1920~1930년대 다수의 음악교육시설에서 실제 누가 정식학생으로 등록되었고, 청강생이었는지, 일차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하지 않은 채, ‘베를린 유학’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16 日外アソシエーツ 編, 『音樂家人名事典』, 日外アソシエーツ, 2001 참고.

이러한 현상은 다른 전공에서도 비슷하다. 베를린대학에서 철학, 경제학, 문학, 법학 등 많은 일본인이 유학했다고 하지만, 실제 정규학생으로 등록된 일본인 수(약 240명)는 청강생 수(415명)의 약 1/2에 가깝다. 여기에다 독일어연구소 어학 코스 등록학생(약 1000명)을 합치면 정규학생은 전체 베를린 유학생(약 1500명)의 1/6에 불과하다.¹⁷

본 논문의 목적인 베를린의 일본 음악유학생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1920~1930년대 베를린에 있던 음악교육기관을 알아본 후, 학생 이름이 모두 등록되어 있는 아카이브 문서를 분석하고자 한다.

당시 베를린에는 4개의 음악학교가 있었다.¹⁸ 1) 교회음악/학교음악 아카데미(Akademie für Kirchenmusik und Schulmusik),¹⁹ 2) 슈테른 콘서바토리(Sternsches Konservatorium der Musik), 3) 뮤직호호슐레(Hochschule für Musik), 4) 클린트보르트-샤르벤카 콘서바토리(Konservatorium Klindworth-Scharwenka)²⁰ 였다.

본 논문에서는 아카이브에 문서가 남아 있는 베를린의 대표적인 음악기

17 和田博文 外, 『言語都市・ベルリン: 1861~1945』, 439~464쪽의 학생 명단을 분석한 결과 1920년부터 1929년까지 정식 등록된 학생 수는 42명, 1930년부터 1941년까지 11명(총 53명)에 불과했다. 다른 한편, 가토 테쓰오는 베를린대학 재직 일본인 정규 학생 수는 1925년 33명, 1926년 29명, 1927년 40명, 1928년 12명, 1929년 16명, 1930년 26명, 1931년 24명, 1932년 25명, 1933년 16명, 1934년 6명, 1935년 2명으로 제시한다(총 229명). 加藤哲郎, 『ワイマル共和国の「洋行」日本人』, 30쪽. 유학생 목록을 제시한 하르트만의 연구가 종합적이고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Rudolf Hartmann, *Japanische Studenten an der Berliner Universität 1920-1945*, pp. 16~170.

18 1922년에 베를린에서 유학한 것으로 알려진 음악학자 가네쓰네 기요스케는 당시 베를린에 3개의 음악학교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으나 '교회음악아카데미'를 간과했다. 兼常清佐, 『音楽巡礼』, 岩波書店, 1925 참고. 다른 한편, 프로이센 예술아카데미(Preußische Akademie der Künste)에서는 작곡만 따로 공부할 수 있는 작곡 마스터 코스(Meisterschulen für Komposition)가 있었다. 여기에는 부소니(Ferruccio Busoni)나 12음기법을 창안한 쇤베르크 같은 쟁쟁한 작곡가가 가르쳤다.

19 교회음악/학교음악 아카데미(1922년 명칭)는 1822년 칼 프리드리히 켈터(Karl Friedrich Zelter)가 설립한 교회음악연구소(Institut für Kirchenmusik/Akademie für Kirchen- und Schulmusik)다. 1918년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학교음악에 강조점을 두고 1922년에 개칭한 것이다. 하지만 나치 시기인 1935년에 다시 음악교육/교회음악 호호슐레(Hochschule für Musikerziehung und Kirchenmusik)로 명칭이 두 번째 개칭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인 1945년에는 뮤직호호슐레의 한 전공 파트로 소속되어 현재 베를린 예술대학의 한 부분이 되었다.

20 1881년부터 존재하던 샤르벤카(Xaver Scharwenka) 설립 콘서바토리와 1883년 설립된 클린트보르트(Karl Klinworth) 설립 음악학교가 1893년 통합되면서 만들어진 사립 콘서바토리다. 바이마르 시기 문화개혁정책을 주도했던 레오 케스텐베르크(Leo Kestenberg)가 피아노를 가르쳤다. 대다수 유대인 교수와 학생들은 나치 시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과 미국으로 망명을 떠나게 된다[작곡이론 후고 라이텐트리트(Hugo Leichtentritt), 첼로 요제프 슈스터(Josef Schuster), 작곡 블라디미르 포겔(Wladimir Vogel) 등]. 이 콘서바토리는 전후 독일의 음악교육기관이 국립화되는 1950년 이후 폐교되었다.

관 ‘슈테른 콘서바토리’와 ‘뮤직호호슐레’(1920~1930년대의 명칭임)만을 다루고자 한다. 이 두 기관은 세계적 음악가를 배출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1) 슈테른 콘서바토리(Stern'sches Konservatorium der Musik)

슈테른 콘서바토리는 1850년에 세 사람의 음악가[율리우스 슈테른(Julius Stern), 테오도르 쿨락(Theodor Kullak), 아돌프 베른하르트 마르크스(Adolf Bernhard Marx)]가 설립한 사립 음악교육기관이었다. 하지만 1856년부터 슈테른 혼자 경영하게 되어 ‘슈테른 콘서바토리’로 칭하게 되었다. 이 기관에서 배출된 음악가 중에는 피아니스트 클라우디오 아라우(Claudio Arrau), 지휘자 오토 크렘페레(Otto Klemperer), 브루노 발터(Bruno Walter)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가가 많다. 사립이었지만 1910년대에는 베를린에서 음악교육의 최고기관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²¹ 하지만 나치 시기에는 유대인 원장을 강제 해임시키고 ‘아리아인’ 원장이 관리하면서 나치정책에 협력했다. 이후 1936년 강제로 베를린 시에 매각된 후 ‘제국수도의 콘서바토리’(Konservatorium der Hauptstadt)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²² 1944년 10월 전쟁을 위한 총동원 명령이 있을 후, 음악가들도 전장으로 나갔으므로 콘서바토리는 텅 빈 상태가 되었다. 1945년 패전 이후에 다시 문을 열면서 ‘시립 콘서바토리’(Städtisches Konservatorium, 1945~1966)로 개명했다가 1966년 뮤직호호슐레에 통합되었다. 그래서 슈테른 콘서바토리의 문서들이 전후 뮤직호호슐레의 아카이브에 보존되어 있다가 현재에는 베를린 예술대학의 아카이브에 있다.

일반적으로 ‘베를린 음악학교’에서 공부했다고 알려진 채동선과 정석호²³

21 소장 구스타프 홀렌더(Gustav Hollaender)가 이끌었던 1885~1915년 기간이 슈테른 콘서바토리의 최고 전성기였다. 나치의 반유대인 차별정책으로 인해 1936년부터 1943년까지 유대인 학생들만 따로 교육하도록 ‘사립 유대인 음악학교 홀렌더’(Jüdische private Musikschule Hollaender)가 별도로 존재했다.

22 Cordula Heymann-Wentzel, *Das Stern'sche Konservatorium der Musik in Berlin. Rekonstruktion einer verdrängten Geschichte*, Diss. Universität zu Künste 2010. 아카이브의 자료가 남아 있는 ‘제국수도의 콘서바토리’ 1936~1938년 문서에는 일본 학생의 이름은 한 명도 없다.

23 정석호는 월북했다가 모스크바 유학 중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수도 알마티로 망명한 작곡가 정추의 외삼촌이다. 구혜우·송홍근, 『정추: 북한이 버린 천재 음악가』, 시대정신, 2012, 86~90쪽; 이경분, 『북한의 망명음악가 정추 연구: 초기 교향악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7집 1호, 2015, 223~224

는 뮤직호흐슐레가 아니라, 슈테른 콘서바토리아에서 공부했다. 그 흔적이 아카이브 문서에 남아 있는데, 조선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따로 연구 발표할 것이다.

1924/25년 총 892명의 학생 중 동아시아에서 온 학생은 2명, 1925/26년 총 940명 중 4명, 1926/27년 총 885명 중 3명, 1927/28년 총 897명 중 4명, 1928/29년 총 897명 중 4명, 1929/30년 총 773명 중 3명에 불과했을 정도로 동아시아권의 학생 수는 적었다.²⁴

2) 뮤직호흐슐레(Hochschule für Musik)

베를린 뮤직호흐슐레는 원래 1869년 ‘왕립 아카데미 뮤직호흐슐레’(Königliche akademische Hochschule für Musik)로 설립했다가 1918년 ‘국립 아카데미 뮤직호흐슐레’(Staatliche akademische Hochschule für Musik)로 명칭이 변경되었다.²⁵ 1910~1914년 유학한 작곡가 야마다 고사쿠와 1912~1914년에 유학한 고베 출신의 여류 피아니스트 오구라 스에코, 그리고 오노 히사하루(多久寅, 1884~1931), 하기와라 에이이치(萩原英一, 1887~1954) 및 핫토리 시로지(服部騷郎次, 1886~1936)는 당시 뮤직호흐슐레의 이전 명칭인 ‘왕립 아카데미 뮤직호흐슐레’에서 유학했다.²⁶ 하지만, 1930년대 유학한 모로이 사부로나 기시 고이치를 비롯한 대다수 음악유학생이 공부한 곳은 뮤직호흐슐레였다.

뮤직호흐슐레에서도 나치가 지배하는 1933년부터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세계적으로 명망이 있어도 유대인은 총장이 될 수 없었다. 1920년부

쪽 참고.

24 *Das Stern'sche Konservatorium Jahresbericht über 75. Schuljahr 1924/1925, über 76. Schuljahr 1925/1926, über 77. Schuljahr 1926/1927, über 78. Schuljahr 1927/1928, über 79. Schuljahr 1928/1929, über 80. Schuljahr 1929/1930* 참고.

25 Dietmar Schenk und Linde Grossmann hrsg., *Pianisten in Berlin, Klavierspiel und Klavierbildung seit den 19. Jahrhundert*, Hochschule der Künste Berlin, 1999 참고.

26 야마다는 막스 브루흐(Max Bruch) 교수에게서 작곡을 공부했다. Stolberg-Wernigerode, Otto zu: *Neue deutsche Biographie*, Bd. 2, Behaim - Bürkel, Berlin, 1955. 오구라는 유명한 피아니스트 칼 하인리히 바르트(Karl Heinrich Barth) 교수에게서 배웠다. 津上智実, 「神戸女学院任込み」의ピアニスト小倉末子, 113~128쪽; 고베여대전사회, <100年前の卒業生: 世界が認めた最初の日本人ピアニスト小倉末子の軌跡>(2010) 개략.

터 총장으로 연임될 정도로 명망이 높았던 작곡가 프란츠 슈레커(Franz Schreker)는 나치제국 이전부터 나치들의 공격을 받았던 유대인 음악가였다. 1932년 그의 작품 〈겐트의 대장장이〉(Der Schmied von Gent) 공연이 나치의 방해로 엉망이 된 직후, 슈레커는 뮤직호흐슐레 총장직에서도 해임되었다.²⁷ 슈레커의 후임으로 게오르크 쉬네만(Georg Schünemann)이 임명되었지만 곧 물러나고, 열성 나치 총장 프리츠 슈타인(Fritz Stein)이 1933년 나치의 프로 파간다 정책에 협력하는 기관으로 뮤직호흐슐레를 운영한다.

매년 발간되는 『뮤직호흐슐레 연감』(Jahresbericht)의 표지에도 1933/34년 겨울학기부터 이전에 없었던 하켄크로이츠

(나치 문양)가 인쇄되어 발간된다.²⁸ 이 시기 이후 유대인 교수들은 교수 직을 잃게 되는데, 에마누엘 포이어만(Emanuel Feuermann), 에리히 호른보스텔(Erich Moritz von Hornbostel), 레오니트 크로이처(Leonid Kreutzer), 프리다 뢰벤슈타인(Frieda Loebenstein), 샬로테 페퍼(Charlotte Pfeffer), 막스 로스탈(Max Rostal), 쿠르트 작스(Curt Sachs), 샬로테 슐레징어(Charlotte Schlesinger), 카를 플레쉬(Carl Flesch) 그리고 파울 힌데미트(Paul Hindemith) 등을 들 수 있다.²⁹

특히 1921년부터 재직한 유명 피아니스트 레오니트 크로이처는 1934년 도쿄 연주 여행 이후,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1938년 망명하여 도쿄 음악학교에서 일본학생들을 가르치며 일본에서 여생을 보낸다.

슈테른 콘서바토리에 비해 뮤직호흐슐레에 합격해 수업을 받는 학생 수는 훨씬 적었다. 예를 들면 1924/25년 겨울학기에 443명, 1925년 여름학기

27 1933년에는 나치들의 테러로 〈크리스토포루스 또는 오페라의 비전〉(Christophorus oder Die Vision einer Oper) 공연이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 충격으로 1934년 슈레커는 갑자기 사망한다.

28 1933년 새 총장은 프리츠 슈타인(Fritz Stein)이 되었고, 나치정책에 발맞추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고양된 봉사의 준비”라는 제목의 총장 연설이 1934/35년 연감에 실렸다. 56. *Jahresbericht der Staatliche Akademischen Hochschule für Musik in Berlin* (Bestand 1, D14). 또한 1935/36년 연감에는 칼 마리아 베버를 “독일예술과 독일정신의 투쟁자”(C.M.von Weber, Ein Kämpfer für deutsche Kunst und deutschen Geist von Prof. Dr. Franz Rühlmann)라는 제목의 정치적인 내용의 연설이 실려 있다. 57. *Jahresbericht der Staatliche Akademischen Hochschule für Musik in Berlin* (Bestand 1, D14).

29 피아니스트 아르투어 슈나벨은 1931년에 학교를 떠난다. 힌데미트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히틀러가 싫어하는 음악가로 찍혀 수난을 겪다가 1937년 사직하고 망명한다.

에 444명이 등록했는데, 슈테른 콘서바토리의 892명에 비하면 1/2에 불과했다. 뮤직호흐슐레의 학생은 1931년에 700여 명까지 증가하지만, 제2차 대전 발발 전까지 500~600명 정도에 머물고, 1939년 9월 이후에는 500명 이하로 감소한다.³⁰

5. 베를린의 일본 음악유학생

이상과 같이 1920~1930년대에는 슈테른 콘서바토리와 뮤직호흐슐레가 지급(베를린 예술대학에 통합)과 달리 구분되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베를린에서 유학한 일본 유학생들의 자료를 슈테른 콘서바토리와 뮤직호흐슐레로 구분해 정리하고자 한다.

1) 슈테른 콘서바토리의 일본제국권 유학생

현재 베를린의 예술대학 아카이브에 소장되어 있는 슈테른 콘서바토리 문서 중 매년 발행되는 연감에는 일본 음악유학생의 이름, 출생지, 전공, 수학기간 등의 정보가 들어 있다. 1924~1930년의 문서에서 확인되는 일본 유학생의 정보는 <표 3>과 같다.³¹ 일차 문헌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현재 표기법과 차이가 있지만 문서에 적혀 있는 독일식 표기를 그대로 쓰고, 한글 표기와 일본원명(알 수 있는 경우만)을 병기했다.

정석호와 채동선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연구하기로 하고, 5명의 일본인

30 1931/32년 겨울학기 708명, 1932년 여름학기 684명, 1932/33년 겨울학기 635명, 1933년 여름학기 543명, 1935/36년 겨울학기 492명, 1936년 여름학기 535명, 1936/37년 겨울학기 530명, 1937년 여름학기 547명, 1937/38년 겨울학기 526명, 1938년 여름학기 509명, 1938/39년 겨울학기 507, 1939년 여름학기 537명, 1939/40년 겨울학기 454명, 1940년 여름학기 481명, 1940/41년 겨울학기 491명, 1941년 여름학기 466명. 이후의 문서는 아카이브에 없는데, 전쟁으로 호흐슐레의 건물이 파괴된 점, 젊은 학생들이 모두 전장으로 나간 것 등 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흥미로운 것은 전쟁 발발 전인 1938/39년 겨울학기 연감부터 몰자 절약을 이유로 페이지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다.

31 1924년부터 1930년까지의 남아 있는 자료에 국한한다. 아카이브 자료에는 일본명의 원어가 없으므로, 독일어 알파벳과 한글명을 적었다. 일본어원명을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일본어를 병기하였다. 또한 출생지는 문서에 기록된 것을 우리말로 번역 표기했다.

은 바이올린과 피아노 전공자이고 오카야마, 다카마쓰, 히로시마, 요코하마 출신이다. 일반적으로 도쿄 출신이 많으리라는 추측과는 다르다.

일본 이름이 아니므로 표에 넣지는 않았지만, 칭다오, 도쿄나 고베에서 온 서양인 학생도 있었다. 예를 들면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엘레노르 쉐러(Ellenor Schüler)는 칭다오에서 왔고, 피아노 전공인 루시 움부라이트(Lucie Umbreit)는 고베 출신, 음악이론 전공의 마리온 뤼르(Marion Fuehr)는 도쿄 출신으로 되어 있다. 이들의 독일식 이름으로 미루어 일본과 칭다오에 거주하는 독일계 거주민의 자녀로 보인다.³² 뮤직호호슐레에도 바이올린 전공생인 일제 폰 크렌츠키(Ilse von Krencki)라는 독일 이름이 고베 출신으로 되어

〈표 3〉 슈테른 콘서바토리의 일본 유학생

	이름	출생지	전공	수학기간	스승	비고
1	정석호 Chung, Shuckhoe	조선(Korea)	성악	2년 (1924~1926)	미헬 (Alfred Michel)	기초과정/남
2	이케 유즈 Ike, Yuzu	요코하마	바이올린	2년 (1924~1926)	반 라르 (Louis van Laar)	남
3	채동선(1901~1953) Tschae, Tonson	별교/조선	바이올린	1년 (1925~1926)	반 라르	남
4	아라키 미키 Arakie Mikie	오카야마	바이올린	4년 (1926~1930)	콜베(Dora Kolbe)	여
5	오카우치 준조 Okauchi Junzo 岡内順三 (1907~1953)	다카마쓰	피아노, 오보에 (플룻)	1년 (1927~1928)	분트푸스 (Franz Bundfuß), 빈셔 (Otto Winscher)	남/DIA 등록/ 1933년 귀국
6	다쓰치 고즈오 Tatsuchi Kozuo (또는 Tatsuguchi Kozu)	히로시마	피아노	2년 (1928~1930)	프로이덴베 르크(Günther Freudenberg)	남
7	이토 요시오 Ito Yoshio (또는 Jto Joshio)		피아노	2년 (1928~1930)	폰 파포프 (Wladimir v. Papoff)	남/ DIA 등록

주: 〈표 3〉~〈표 6〉의 모든 유학생 이름의 로마자 표기는 독일문서를 따른 것임.

출처: 베를린 예술대학 아카이브(UdK)에 소장되어 슈테른 콘서바토리 문서(Jahresbericht 1924~1930년)를 정리한 것이다.

32 제1차 대전이 끝나고 4,400여 명의 독일과 오스트리아 포로 중 171명이 일본에 남게 되므로, 이들의 자녀들일 가능성이 있다. Maike Roeder ed., „Alle Menschen werden Brüder...“ Deutsche Kriegsgefangene in Japan 1914-1920. Begleitbeft zur Ausstellung der OAG, PrintX Kabushikigaisha, 2005, p. 90, 107 참고.

있다.³³

흥미로운 것은 오카우치 준조(岡内順三)의 경우다. 미술 분야에 비해 음악인으로 좌파 학생운동에 가담한 사람은 극소수인데,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2명이 있다. 그중 한 명이 오카우치 준조다. 좌익 전위미술가인 무라야마 도모요시(村山知義, 1901~1977)의 처남이었던 그는 1927년 9월 1일부터 슈테른 콘서트바토리에서 피아노와 오보에를 빈셔(Winscher)와 분트푸스(Bundfuß) 교수에게서 배웠다.³⁴ 1928년 혁명적인 연출가 센다 고레야(千田是也, 1909~1994)의 소개로 오카우치는 (가토 테쓰로가 명명했듯이) 일명 <사회과학 독서회>와 <베를린 반제그룹>(베를린反帝グループ)의 멤버가 되었다.

당시 수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자유로운 정치적 풍토 속에서 독일공산당(KPD)과 연계를 가지고, 일본의 제국주의를 비판함과 동시에 다른 아시아 멤버들과 연합해서 혁명을 이루고자 하는 유학생들이 베를린에 모여 있었다. 한편에서는 재독 일본인의 <베를린 반제그룹>, <사회과학연구회>, <혁명적 아시아협회>³⁵라는 명칭의 독서회 그룹으로 1930년대 중반까지 존재했다.³⁶

다른 한편에는 <베를린 반제그룹>과 <사회과학연구회>가 독일공산당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움직였던 것과 달리, 독일공산당과 거리를 두는 작은 <마르크스 연구회>도 있었다.³⁷ 신메이 마사미치(新明正道)가 이끈 이 모

33 일제 폰 크렌츠키(Ilse von Krencki)는 『뮤직호호슬레의 연감』에 1918년 10월~1919년 9월, 1919년 10월~1920년 9월까지 등록되어 있다. *Jahresbericht der Staatliche Akademischen Hochschule für Musik in Berlin 1918-1925* (Bestand 1, D6).

34 49. *Jahresbericht der Staatliche Akademischen Hochschule für Musik in Berlin 1927/28*.

35 총 6명의 혁명적 아시아협회 회원 중 유일한 조선인은 경성제대 출신 이강국(李康國, 1906~1956)이었다. 이강국은 1932~1935년 베를린 유학 당시 1932년 10월 독일공산당 당원이 되어 활동했다. 일본영사관의 박해와 나치의 탄압으로 1935년 11월 미국을 거쳐 귀국하고 검거되었다. 체포와 석방을 몇 번 반복한 후 1944년 여운형과 함께 일하다가 해방이 되자 박헌영의 원팔로서 월북했지만, 1956년 김일성에게 숙청당한다(전명혁, 「1930년대 이강국(李康國)과 그의 인민전선론 인식」, 『마르크스 연구』 7권 7호, 2008, 177쪽).

36 공산주의자에 대한 나치의 핍박으로 멤버들은 독일 망명자들처럼 파리로 피신하게 되는데, 1932년 1월에 파리의 반제국주의 일본인 약 17명이 결성한 <파리 가스프>(パリ・ガスフ: 芸術科学友の会)라는 모임에 합류하게 된다.

37 5명으로 구성된 이 모임을 가토 테쓰로는 <신메이 마사미치의 코르쉬-탈하이머 연구회>(新明正道の コルシュ, タールハイマー研究会)로 칭하고 있다. <http://members.jcom.home.ne.jp/072286711/Berlin.html>(검색일: 2016. 7. 4).

임은 소수의 도쿄대학 출신자들로 주로 상과 전공자들이었고, 이들의 이론적 멘토는 카를 코르쉬(Karl Korsch)와 아우구스트 탈하이머(August Thalheimer)였다. 코르쉬는 스탈린주의로 치닫는 독일공산당을 비판하여 1925년 당에서 제명되었고, 탈하이머도 스탈린주의를 독일공산당에 적용하는 것을 반대하여 독일공산당에서 제적당한 마르크스주의자였다. 따라서 비교조적 이론가의 영향하에 있었던 이 〈마르크스 연구회〉는 〈베를린 반제그룹〉보다 비교조적인 모임이었으리라 추측된다.

음악 분야의 좌파 유학생 중 다른 한 명은 1932~1933년 베를린에서 음악공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니노미야 슈(二宮秀)다. 오카우치가 슈테른 콘서바토리아에서 전문음악인 훈련을 받았던 반면, 니노미야 슈의 이름은 슈테른 콘서바토리아 뮤직호흐슐레의 학적부뿐 아니라, 독일어연구소의 문서에도 나오지 않는다.³⁸ 그는 정식 교육기관에서 공부하지 않았거나, 현재 자료가 없는 클린트보르트-샤르벤카 콘서바토리아에서 공부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니노미야는 프롤레타리아 미술가인 도리이 도시후미(鳥居敏文) 등과 교류하면서 오카우치처럼 〈베를린 반제그룹〉의 멤버로 활동했다.³⁹

반나치, 반전 활동을 했던 〈베를린 반제그룹〉에는 총 32명의 좌파 지식인, 예술인들이 참가했고, 이 중 13명이 베를린 대학의 유학생이었다.⁴⁰ 이 그룹이 독일공산당 소속의 한 조직인 ‘일본 그룹’으로 역할을 했던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구니자키 데이도(国崎定洞, 1928년 입당, 1932년 소련 망명)나 센다 고레야(1929년 입당), 오카우치 준조(1930년 입당), 고바야시 요노스케(小林陽之助, 1930년 입당, 1933년 모스크바 망명), 오구리 교타로(小栗喬太郎, 1932년 입당) 등

38 그의 이름은 많은 증인들의 회고록에서는 二宮周로 알려져 있었으나, 실제로 다카라즈카 가극단(宝塚歌劇団)과 관련해서 나타나지 않고 대신 二宮秀라는 이름이 나온다. 두 이름은 고베 의사 집안 출신으로 베를린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나치의 권력 장악 이후 파리로 가서 공부하다가 귀국하여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음악감독이 되었다는 이력을 가진 동일인임이 밝혀졌다. 『일본인물정보체계』(日本人物情報体系)의 데이터베이스에서도 二宮秀가 『다카라즈카 문예도서관보』(宝塚文藝図書館報)에 기고한 적이 있음도 확인되었다. <http://members.jcom.home.ne.jp/072286711/Berlin.html> (검색일: 2016. 2. 29).

39 加藤哲郎, 『ワイマール期ベルリンの日本人: 洋行知識人の反帝ネットワーク』, 14쪽.

40 Rudolf Hartmann, *Japanische Studenten an der Berliner Universität 1920-1945*, p. 10. 가토 테쓰로의 연구는 33명으로 〈사회과학연구회〉 멤버가 중첩되기도 한다.

독일공산당 당원이 되었던 멤버들은 1933년 나치가 권력을 장악한 이후 일본으로 귀국하거나 소련으로 망명했다. 바이마르공화국 시기 합법적이었던 독일공산당이 나치제국에서는 불법이었으므로, 더는 독일에서 활동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일본으로 귀국한 후에 검거되었다가 증거 부족으로 풀려나기도 했지만, 체포되면 대다수가 전향했다.⁴¹

소련 망명을 선택한 구니자키 데이도가 소련에서 스파이로 의심받아 숙청된 것과 달리,⁴² 음악유학생 오카우치 준조는 1933년 봄에 일본으로 귀국하는데, 귀국하자마자 바로 특별비밀경찰에 검거되었다.⁴³ 체포된 오카우치는 경찰조사에서 적극 협력하여, <베를린 반제그룹> 소속 멤버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담은 “오카우치 준조 조서”(岡内順三調書)를 작성하고 풀려나온다. 그의 조서가 1937/38년 대대적인 일본 좌익 지식인 예술가를 탄압하는 데 기초자료로 이용되었다.⁴⁴ 반면, 니노미야 슈는 파리를 경유하여 일본으로 귀국한 후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했고, 음악교육도 병행하면서 전쟁시기를 견뎌냈다.

2) 뮤직호흐슐레 학적부의 일본제국권 유학생

음악적 포부가 있는 일본 음악인은 베를린에서 유학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중에서 국립기관인 베를린 뮤직호흐슐레를 가장 동경했다.

41 정혜선, 「전진 일본공산주의운동의 굴절과정: 대량전향 전사(前史)로서의 32년 태세 시기」, 『일본학보』 44, 2000, 627쪽. 검거된 당원의 99%가 전향했다. 이들은 전쟁 후에는 일본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좌파 건축가, 미술가, 연출가로 이름을 날렸다.

42 加藤哲郎, 『モスクワで肅清された日本人』, 青木書店, 1994 참고.

43 독일 문서에는 1년간 슈테른 콘서바토리에서 공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1928년에서 1930년까지 슈테른 콘서바토리 문서에 그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그가 일본 특별경찰에게 넘겨준 조서에 따르면 1933년 귀국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는 필명(白川敏)으로 소설 『백림홍단』(伯林紅團)을 『중앙공론』(中央公論) 1934년 7월 임시증간 신인호에 발표했다. 西村將洋, 「藤森成吉: ベルリンへの娘へ」, 和田博文, 『言語都市・ベルリン: 1861~1945』, 藤原書店, 2006, 300~301쪽.

44 加藤哲郎, 『ワイマール期ベルリンの日本人: 洋行知識人の反帝ネットワーク』, 10쪽과 80쪽 참고. 그 이후 오카우치는 평생 베를린 지인들과 교류를 끊어버렸다고 한다.

(1) 1920~1932년의 등록학생

제1차 대전이 끝난 직후 바이마르공화국 초기에는 뮤직호흐슐레에 유학한 일본 학생의 수는 극히 적었다. 그 첫 학생은 군마에서 온 오르간 전공의 마시노 도시오(真篠俊雄)였다. 먼저 1920년부터 나치제국이 성립되는 전환기인 1933년 초반까지의 유학생은 <표 4>에 정리했다.

이 표에서 흥미로운 것은 도쿄 출신이 10명으로 압도적이고, 특히 1930년부터 1933년까지 매년 3명이 입학(총 9명)한 것이다. 1920년부터 1929년까지 10년간 뮤직호흐슐레에 입학한 학생 수는 총 7명에 불과했다. 반면, 1930~1932년에만 9명이 입학한 것은 1930년대에 이르러 일본의 음악교육 수준이 한 단계 상승했음을 암시한다. 전공도 피아노와 바이올린에 집중되지 않고, 성악, 첼로, 오르간, 작곡 등 다양해졌다. 특히 1930년대에 들어서서 ‘작곡 전공’ 학생 3명(모로이 사부로, 간이치 가쿠조, 나카세코 가즈)이 등록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 이유는 유럽인 중에도 작곡 전공 학생은 극소수인데, 1932~1933년 한꺼번에 (첼로나 오르간 전공보다 많은) 3명의 학생이 등록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미 언급했듯이 야마다 고사쿠가 1910년대 왕립 예술아카데미 뮤직호흐슐레에서 브루흐(Max Bruch)에게서 작곡을 공부했지만, 그 이후 약 20년간 슈테른 콘서바토리와 뮤직호흐슐레에서 정식 ‘작곡’ 전공 일본인 유학생은 1930대 초까지는 한 명도 없었다. 특히 3명 중 나카세코 가즈는 여성으로 작곡 공부를 시도한 경우다. 당시 유럽에서도 아직 여성 작곡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때, 나카세코 가즈가 작곡을 공부하고자 베를린으로 가서 힌데미트에게서 배운 것은 동아시아 음악사에서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귀국 후 도시사대학의 음악교육에 크게 기여했던 나카세코 가즈뿐 아니라,⁴⁵ 모로이 사부로, 시모후사 간이치도 일본의 서양음악 교육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30년대 세계적인 음악교육기관에 일본학생이 증가하는 것은 일본 음

45 나카세코 가즈는 독일 유학 전에 미국 워싱턴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다.

〈표 4〉 바이마르공화국 시기 뮤직호흐슐레 학적부의 일본 유학생(1920~1933)

	이름(한/독/일)	출생지	전공	수학기간	스승	비고
1	마시노 도시오 Mashino Toshio 真篠俊雄(1893~1979)	군마	오르간	1920~1924		남
2	야타베 게이키치 Yatabe Keikichi 矢田部勁吉(1896~1980)	도쿄	성악	1922~1923		남
3	이노우에 오리코 Inoue Oriko 井上織子(1902~1930)	도쿄	성악	1923~1925		여
4	후나바시 에이키치 Funabashi Yeikichi 船橋栄吉(1889~1932)	도쿄(요코하마)	성악	1924~1927		남/1927. 4. 자퇴
5	이즈미 치요 Izumi Chiyo 和泉千代(1899~?) ¹⁾	도쿄	피아노	1924~1925		여
6	이데 이사코 Ide Isa 井出いさこ(1907~?) ²⁾	도쿄	피아노	1927~1928		여
7	오이다 고키치 Oida Kokichi 笈田光吉(1902~1964) ³⁾	도쿄	피아노	1926~1928	레오니트 크로이처	남/DIA 등록 1925. 8
8	기시 고이치 Kishi Koichi 貴志康一(1909~1937)	오사카	바이올린	1930~1931		남/1931. 부활절 자퇴
9	오쿠다 료조 Okuda Ryozo 奥田良三(1903~1993)	삿포르	성악 (테너)	1930~1932		남/DIA 등록 1930. 9. 9
10	사이토 히데오 Saito Hideo 齋藤秀雄(1902~1974)	도쿄	첼로	1930~1932	에마누엘 포이어만	남/1932. 부활절 자퇴
11	에비나 미치 Ebina Michi 海老名みち(1899~1988)	도쿄	오르간	1931~1932		여
12	나카세코 가즈 Nakaseko Kazu 中瀬古和(1908~1973)	교토	작곡	1931~1933	파울 힌데미트	여/1933. 부활절 자퇴
13	오무라 우히치 Omura Uhichi 大村卯七(1904~1979)	사이타마 현	첼로	1931~1933	에마누엘 포이어만	남
14	사와사키 아키코 Sawasaki Akiko 澤崎秋子(1905~1984) ⁴⁾	도쿄	피아노	1932~1933	바이스(Weiss)	여/DIA 등록 1931. 4. 7

〈표 4〉 바이마르공화국 시기 뮤직호호슐레 학적부의 일본 유학생(1920~1933)(계속)

	이름(한/독/일)	출생지	전공	수학기간	스승	비고
15	모로이 사부로 Dr. Moroi Saburo 諸井三郎(1903~1977)	도쿄	작곡	1932~1933	슈라텐홀츠 (Leo Schrattenholz), 트랩(Max Trapp), 그마인들 (Walther Gmeindl)	남/DIA 등록 1932. 7. 29
16	시모후사 가쿠조=간이치 Shimofusa Kakuzo 下総皖一(1898~1962)	사이타마 현	작곡	1932~1933	파울 힌데미트	남/DIA 등록 1932.6. 6

- 주 1) 고노에 히데마로 지휘의 신교향악단 정기 연주회(1928. 6. 10)에서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5번 연주. 1927년 요셉 쾨니히(Josef Koenig)가 지휘하는 베토벤 기념 연주회(1927. 4. 29)에서 피아노를 연주함. NHK交響楽団, 『NHK交響楽団 40年史: 1926~1966』, 日本放送出版協会, 1967, 231, 259쪽.
- 2) 이데 이사코는 레오니트 크로이처의 제자였고, 결혼 후의 이름은 구로카와 이사코(黒川いさこ)다. 이 외에도 〈표 4〉의 음악가 일본어원형 정보에 대해 우에무라 유키오(植村幸生) 선생께 감사드린다.
- 3) 오이다 고키치는 Oita Kokichi로도 쓴다.
- 4) 사와사키 아키코의 결혼 후 이름은 이구치 아키코(井口秋子)다. 남편은 프랑스에서 유학한 유명 피아니스트 이구치 모토나리(井口基成)다.

출처: 베를린 예술대학 아카이브의 문서(Jahresbericht der Staatliche Akademischen Hochschule für Musik in Berlin)에서 1920~1932년의 일본 유학생만 정리한 것임.

악교육의 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된 것을 의미하지만, 그렇다고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수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뮤직호호슐레 연감』에서 매 학기말 뛰어난 학생들의 연주로 꾸며지는 학생 연주회에서 일본인 학생의 이름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예를 들면, 1932년 7월 8/9일 레오니트 크로이처 교수의 피아노클래스 학생 연주회에서 일본인 학생은 한 명도 없다.⁴⁶

(2) 1933~1941년 등록학생

1933년 나치제국이 시작했음을 『뮤직호호슐레 연감』의 표지에서도 알 수 있다. 1933/34년 연감의 표지에는 이전에 없던 하켄크로이츠가 등장한다.⁴⁷ 나치제국 시기는 다시 제2차 대전 발발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지만, 전쟁 발발 이후에는 독일로 가는 일본 유학생이 거의 없었으므로, 수적으로나 내용

46 53. Jahresbericht der Staatliche Akademischen Hochschule für Musik in Berlin 1931/1932, p. 44.

47 55. Jahresbericht der Staatliche Akademischen Hochschule für Musik in Berlin (Bestand 1, D14, p. 55).

상으로 볼 때, 구분의 의미가 적다. 나치제국 성립부터 제2차 대전으로 유학생 수가 급감하는 1941년까지의 유학생을 정리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나치시기 뮤직호호슬레 학적부의 일본제국권 유학생(1933~1941)

	이름(한/독/일)	출생지	전공	유학 기간	스승	비고
1	안도 아쓰코 Ando Atsuko 安藤敦子	도쿄	피아노	1933~1935		여/DIA 등록 1932. 5. 23
2	모로이 사부로 Dr. Moroi Saburo 諸井三郎 (1903~1977)	도쿄	작곡	1933~1934	슈라텐홀츠, 트랍, 그마인들	남/ 바이마르와 나치 시기를 경험함
3	기노시타 다모쓰 Kinoshita Tamotsu 木下保(1903~1982)	사이타마 현	작곡	1933~1934		남
4	야마모토 세키이로 Dr. Yamamoto Sekyiro	도야마	피아노, 지휘	1933~1936 (피아노) 1936/10~1938 봄(지휘)		남/ 1938년 봄 자퇴
5	아베 가즈코 Abe Kasuko 安部和子(1914~?)	도쿄	피아노	1934~1936		여/ 1936. 4. 자퇴
6	구로사와 아야코 Kurosawa Ajako	도쿄	성악	1934~1936		여/ 1936. 4. 자퇴
7	이애내 Rie Ainai 李愛内(1908~1996)	서울	피아노	1934~1938		여
8	도야마 쓰야 Towyama Tsuya 遠山つや (1905~1998)	나고야	피아노	1934~1937	피셔(E. Fischer), 한젠(K. Hansen)	여/DIA 등록 1933. 7. 9
9	안병소 Ahn Pyeng-so 安炳昭(1908~1974)	서울	바이올린	1935~1937		남/ 1937. 4. 자퇴
10	사카모토 요시타카 Sakamoto Yoshitako 坂本良隆 (1898~1968)	모리오카	작곡, 합창지도	1935~1938	힌데미트, 슈타인	남
11	후쿠이 나오히로 Fukui Naohiro 福井直弘 (1912~1981)	도쿄	바이올린, 합창지도	1936~1939		남

〈표 5〉 나치시기 뮤직호흐슐레 학적부의 일본제국권 유학생(1933~1941)(계속)

	이름(한/독/일)	출생지	전공	유학 기간	스승	비고
12	미야자키 나오이치 Miyazaki Naoichi 宮崎直一(?)	아이치 현	바이올린	1936~1939		남/DIA 등록 1936. 11. 3
13	미야우치 시즈요코 Miyauchi Shizuyoko 宮内鎮代子(1910~?)	도쿄	피아노	1938~1939?		여
14	히라하라 스에코 Hirahara Sueko 平原壽恵子 (1907~1993)	도쿄	성악(소프라노)	1938 겨울학기		여

출처: 베를린 예술대학 아카이브의 문서(Jahresbericht der Staatliche Akademischen Hochschule für Musik in Berlin)에서 1933~1941년의 일본제국 유학생만 정리한 것임.

서울 출신의 안병소와 이해내에 대해서는 조선인 음악유학생에 관한 추후 연구에서, 또 상하이에서 온 야오 친-쑤(Yao Tschin-schin 피아노 전공), 칭다오에서 온 한스-게오르크 바그너(Hans-Georg Wagner 트롬본 전공), 난징에서 온 초우 판시(Chow, Pansy 피아노 전공) 등 중국 출신에 대해서도 추후 연구에서 다룰 것이다.

〈표 5〉에서 특이한 것은 여성 음악유학생이 피아노(5명)와 성악(2명)으로 총 14명 중 50%를 점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음악 실력이 빠른 속도로 인정받을 의미를 의미한다. 미혼의 일본여성이 베를린이나 빈으로 홀로 유학을 가는 경우는 음악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베를린에서 유학을 하지는 않았지만, 바이올린 ‘신동’으로 알려진 소녀 스와 네지코(諏訪根自子)도 1936년 벨기에, 1938년 파리에서 유학하였다. 다른 분야보다 음악 분야에 여성의 외국 유학이 많은 것은 그 재능을 발견하고 후원하는 사람이 주로 서양인인 영향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일 벨기에 외교관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았던 스와 네지코의 경우에서처럼, 서양인의 후원과 지지는 여성이라는 장벽을 쉽게 뛰어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음악을 배우기 위해 여성 혼자 유학을 갈 수 있는 상황 자체는 ‘근대화’의 혜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전에 보기 힘들었던 ‘부부유학생’의 등장(총 17가정이 DIA에 등록됨)도 여성의 해외

유학 증가와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⁴⁸ 하지만 이것을 여권신장의 결과로 볼 수 있을지는 따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⁴⁹

베를린대학에서는 1920년부터 1945년까지 모든 과목을 통틀어 정규생이 총 240명 가량이었고, 청강생 수는 415명으로 정규생보다 많았던 반면,⁵⁰ 음악유학생의 경우 슈테른 콘서바토리와 뮤직호흐슐레에 등록된 정식학생 수가 35명이고, 청강생 수는 극히 소수다.⁵¹ 베를린대학의 전 과목에서 청강생이나 독일어연구소에 등록한 일본 유학생의 수가 정규생보다 더 많은 것은 언어의 장벽이 음악전공에서 보다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3) 베를린대학 독일어연구소의 일본 음악유학생

슈테른 콘서바토리와 뮤직호흐슐레에 정식 등록된 학생(총 10명)을 포함한 베를린대학의 독일어연구소의 음악유학생 명단은 <표 6>과 같다.

음악실기가 아니라 이론적 학문으로서 음악을 공부하는 ‘음악학’은 콘서바토리아나 호흐슐레가 아니라 베를린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가능했다. 즉, 독일에서는 첼로, 피아노 같은 음악실기는 뮤직호흐슐레에서, 음악을 학문으로 다루는 음악학은 대학에서 구분하여 가르쳤다. 예를 들면, 다나카 쇼헤이(田中正平)는 베를린대학에서(1884~1887년) 음향학자 및 음악인류학자

48 Rudolf Hartmann, *Japanische Studenten an der Berliner Universität 1920-1945*, p. 5. 예를 들면, 부부 유학생으로 경제학자 야마다 가쓰지로(山田勝次郎)나 작가 후지모리 세이키치(藤森成吉)가 그러한데 둘 다 베를린 <사회과학연구회>와 <베를린 반제그룹> 멤버였다. 특히 나프(NAPP)의 초대 위원장이었던 후지모리에게는 부인을 동반하는 조건으로 독일 유학이 허락되었다. 부인을 데리고 모스크바에 잠입하지는 않으리라는 계산이었으나, 실제로는 정부관료의 의도는 관철되지 못했다(西村將洋, 『藤森成吉: 베를린への娘へ』, 294~295쪽). 또 이러한 그룹에 속하지 않는 부부유학생의 예로는 경성제대에서 미학과 미술을 가르쳤던(1927~1941) 우에노 나오테루(上野直昭)와 도쿄음악학교 졸업생인 부인 우에노 히사(上野ひさ)였다(김문환, 『우에노 나오테루(上野直昭) 저, 미학개론(美學概論)1』, 『미학』 49권, 2007, 215~267쪽). 그 외 마르크스주의자이며 경성제대 교수였던 미야케 시카노스케(三宅鹿之助)도 부인 히데코(三宅秀子)를 동반하여 1929년 2월에서 1930년 5월까지 베를린에 머무르면서 <베를린 반제그룹>과 교류했다. 김경일, 『지배와 연대의 사이에서: 재조일본인 지식인 미야케 시카노스케(三宅鹿之助)』, 『사회와 역사』 통권 제105집, 2015, 298쪽.

49 쓰가미 모토미의 연구(津上智実, 『神戸女学院仕込みのピアニスト小倉末子』)는 초기 일본의 대표적 피아니스트가 여성임을 페미니스트적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

50 Rudolf Hartmann, *Japanische Studenten an der Berliner Universität 1920-1945*, pp. 171~172.

51 1922년 마스터 클래스(4월 19일~7월 8일)에는 일본에서 온 사츠 겐조(Satch Kenzo)와 미국에서 온 가와시마 아이코(Kawashima Aiko)가 청강생으로 등록되어 있다.

〈표 6〉 독일어연구소(DIA)의 일본 음악유학생 명단

	이름(한/독/일)	출생지	전공	DIA 등록	스승	비고
1	가네쓰네 기요스케 Kanetsune Kiyosuke 兼常清佐(1885~1957)	야마구치 현	음악학	1922. 6. 2	베를린대학 청강생 1922/23	남
2	오이다 고키치 Oida Kokichi 笈田光吉(1902~1964)	도쿄	피아노	1925. 8	레오니트 크로이처	남/ 뮤직호흐슐레
3	노무라 고이치 Nomura Koichi 野村光一(1895~1988)	오사카	음악비평		베를린대학 청 강생 1927년 여름학기	남
4	오쓰키 도아코 Otsuki Toako	도쿄		1927. 6. 16		여
5	오카우치 준조 岡内順三(1907~1953)	다카마츠	피아노, 오보에(플룻)	1928. 1. 18	분트푸스, 빈셔	남/슈테른 콘서바토리
6	나쓰메 준이치 Natsume Junichi 夏目純一(1907~1999)	도쿄	바이올린	1928. 2. 21		남/나쓰메 소세키(夏目漱 石)의 장남
7	야나기 가나에 Yanagi Kanae 柳かなえ		성악	1928. 9. 6		여
8	이토 요시오 伊藤義雄		피아노	1929. 6. 11	레오니트 크로 이처, 폰 파포프	남/슈테른 콘서바토리
9	유게 야스 Yuge Yasu			1929. 7. 18		여
10	고바야시 이치로 Kobayashi Ichiro 小林一郎			1930. 3. 22		남
11	마쓰다 사부로 Matsuda Saburo 松田三郎			1930. 6. 17		남
12	오쿠다 료조 奥田良三(1903~1993)	사뵤로	성악(테너)	1930. 9. 9		남/ 뮤직호흐슐레
13	미야하라 데이지 Miyahara Teiji 宮原禎次(1899~1976) ¹⁾	오카야마 현	작곡	1931. 3. 23	피셔, 솔츠	남
14	사와사키 아키코 澤崎秋子(1905~1984)	도쿄	피아노	1931. 4. 7	바이쓰(Weiss)	여/ 뮤직호흐슐레
15	다카다 사부로 Takada Saburo 高田三朗(1913~2000)	나고야	철학(음악학)	1931. 9. 3	클라우스 프링스하임 (K. Pringsheim), 만프레드 구르 리트(M. Gurlitt)	남/베를린대 철학과 정규생 1931~1933/ 전후 일본현 대음악협회 회장
16	다바나 나카코 Tabana Nakako			1932. 4. 12		여/음악교사

〈표 6〉 독일어연구소(DIA)의 일본 음악유학생 명단(계속)

	이름(한/독/일)	출생지	전공	DIA 등록	스승	비고
17	안도 아쓰코 Ando Atsuko 安藤敦子	도쿄	피아노	1932. 5. 23		여/ 뮤직호호솔레
18	니시카와 미쓰에 Nishikawa Mitsue ²⁾		바이올린	1932. 5. 23		여
19	시모후사 가쿠조= 간이치 下総皖一(1898~1962)	사이타마 현	작곡	1932. 6. 6	힌데미트	남/ 뮤직호호솔레
20	모로이 사부로 諸井三郎(1903~1977)	도쿄	작곡	1932. 7. 29		남/ 뮤직호호솔레
21	도야마 쓰야 遠山つや(1905~1998)	나고야	피아노	1933. 7. 9	피셔, 한젠	여/ 뮤직호호솔레
22	미야자키 나오히치 宮崎直一(?)	아이치 현	바이올린	1936. 11. 3		남/ 뮤직호호솔레
23	와타나베 기쿠코 Watanabe Kikuko			1933. 12. 1		여
24	아야이 데루코 Ayai Teruko		성악	1939. 3. 22		여

주 1) 자작곡 〈겐지 모노가타리〉 연주회(1939. 4. 10)를 미야하라가 직접 지휘함. NHK交響楽団, 『NHK交響楽団40年史: 1926~1966』, 271쪽.

2) 아마다 가즈오(山田一雄)가 지휘한(1945. 2. 24~26) 연주회의 바이올린 솔리스트. NHK交響楽団, 『NHK交響楽団40年史: 1926~1966』, 244쪽.

출처: Rudolf Hartmann, *Japanische Studenten an der Berliner Universität 1920-1945*, pp. 16~202에서 음악유학생만을 정리한 것임. 하르트만은 1920~1945년까지 음악유학생(음악실기 14명, 음악학 4명)을 총 18명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오류로 보인다(Rudolf Hartmann, *Japanische Studenten an der Berliner Universität 1920-1945*, p. 6).

헤르만 헬름홀츠(Hermann Helmholtz)와 카를 슈툼프(Carl Stumpf)에게 수학하여 순정음의 파이프오르간을 제작한 제1세대 독일유학과 음향물리학자였다.⁵² 제1차 대전 후 유학 세대로는 음악평론가 이시쿠라 고사부로(石倉小三郎)가 1921~1924년에 베를린대학(독문학과)에 정식 등록된 유학생이었고, 일본현대음악협회 회장이 되는 다카다 사부로도 베를린대학의 철학 전공으로 1931~1933년까지 정식 등록되어 있다. 그 외, 작곡가 미쓰쿠리 슈키치

52 泉健, 「田中正平における西洋音楽の受容」, 『和歌山大学教育学部紀要 人文科学』 61, 2011, 113~126쪽. 이 당시 그와 함께 베를린대학에 유학한 사람이 의사이자 번역가였던 모리 오가이(森鷗外)다. 모이 오가이 기념관은 현재 훔볼트대학 소속으로 운영 중이다.

(箕作秋吉)는 원래 도쿄제대 공학과에서 응용화학을 전공했는데, 베를린에 유학 온 후 1922/23년 베를린대학의 청강생으로 등록하여 공부하면서, 개인 레슨으로 게오르크 슈만(Georg Schumann)에게 화성법을 배웠다. 귀국한 이후에는 이케노우치 도모지로(池内友次郎), 요셉 쾨니히, 요셉 로젠슈토크(Joseph Rosenstock)에게 음악을 배웠다. 이후 미쓰쿠리는 신흥작곡가연맹을 조직하는 등 작곡가로서 활동한다.

하지만 ‘음악학’으로 정식 등록된 일본학생은 1920~1945년을 통틀어 사토 겐조(1892~?) 한 명뿐이다. 그는 1924~1927년까지 음악학 수업을 받은 후, 1927~1934년 베를린대학 동양어학과에 일본어 강사로 재임한다.⁵³

전공을 불문하고 베를린대학의 독일어연구소의 어학 코스는 일본 학생들에게 유학생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독일어를 배울 수 있는 기관이었다. 음악유학생은 콘서바토리아 뮤직호호슐레에서 정식학생으로 수업을 받기 전에 이 독일어연구소의 어학 코스에 등록하면서 전공을 준비할 수 있었다. 오카우치 준조, 이토 요시오, 오이다 게키치, 오키다 료조, 사와사키 아키코, 안도 아쓰코, 모로이 사부로, 시모후사 가쿠조, 도야마 쓰야, 미야자키 나오히시가 이 연구소에 등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의 일본 음악학자로서 유명한 가네쓰네 기요스케, 유명 평론가 노무라 고이치, 미야하라 데이치, 이토 요시오 등은 독일어연구소에 등록되었을 뿐, 베를린대학이나 뮤직호호슐레의 정규생 학적부에는 등록된 적이 없다. 이 중에서 가네쓰네와 노무라만이 베를린대학 청강생으로 등록되었다. 그 외 학생들은 클린트보르트-샤르벤카 콘서바토리에 등록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자료 부족으로 알 수 없다.

4) 그 외 베를린 교육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일본 음악유학생

베를린 음악교육기관의 문서에 기록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레슨을 받거나, 음악적 발전을 위해 베를린을 방문한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고노

53 Rudolf Hartmann, *Japanische Studenten an der Berliner Universität 1920-1945*, p. 119.

에 히데마로와 야나기 가네코라 할 수 있다. 고노에는 일본의 명문 귀족 출신으로 자신이 원하는 독일음악가에게 개인 레슨을 받을 수 있었다. 지휘를 전공했던 고노에는 지휘 훈련을 위해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이용할 정도로 특별대우를 받았는데, 제2차 대전 중에는 안익태와 함께 일본의 지휘자로 일독 동맹의 문화정책적 프로파간다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⁵⁴ 다른 예로서 야나기 가네코는 1928년 4월 경성에서 독창회를 개최한 후 시베리아를 경유하여 독일에 도착한 후, 11월에는 베를린에서 ‘독일가곡’으로 독창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1929년 2월 말에 귀국했으나 독일에서 10개월 간 체류한 셈이다.⁵⁵

그 외 그리 유명하지 않은 음악가로서 아리타 다케코(有田竹子)가 있다. 그녀는 베를린에서 유학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카이브 문서 어디에도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미야우치 시즈요코의 독일회고록에는 피아니스트 빌헬름 켐프(Wilhelm Kempff)의 마스터 클래스(총 7명)에서 자신과 함께 참여한 일본 유학생이 오차노미즈 부속 여고의 선배 아리타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아리타가 미야우치 시즈요코와 함께 베를린에서 에드윈 피셔의 수업을 청강했던 흔적도 남아 있다.⁵⁶

6. 일본 음악유학생이 만드는 제국의 회로

베를린의 유학생 중에는 베를린으로 유학 오기 전에 이미 독일인 교수에게 배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미 언급했듯이, 특히 도쿄음악학교에는 독일어권 교수가 포진해 있었으니 그리 특별한 일도 아니었다. 1910년 왕립 아카

54 Lee Kyungboon, "Japanese Musicians between Music and Politics during WWII - Japanese Propaganda in the Third Reich," *ITINERARIO* (International Journal on the History of European Expansion and Global Interaction) 32(2),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p. 121-138 참조.

55 松橋桂子, 『楷書の絶唱 柳兼子』, 水曜社, 2003.

56 和田桂子, 「宮内鎮代子: 피아니스트의青春」, 和田博文, 『言語都市・ベルリン: 1861-1945』, 藤原書店, 2006, 332-333쪽.

데미 뮤직호호슐레에 일본인 작곡학생으로 최초로 합격한 야마다 고사쿠를 비롯하여 1910~1920년대 도쿄음악학교에서 수학한 일본학생들은 당시 재직 중이던 아우구스트 용커나 하인리히 베르크마이스터를 비롯해서 안나 래어(Anna Laehr), 헤르만 호이드리히(Hermann Heudrich), 헝가 페츨트, 마르가레테 네트케-뢰베(Margarette Netke-Löwe), 레오 시로타(Leo Sirota) 등의 독일 어권 교수에게 배웠다.⁵⁷ 1930년대 초부터는 클라우스 프링스하임(Klaus Pringsheim)이나 크로이처 같은 독일제국권의 망명 음악가들이 도쿄음악학교 등 일본의 교육기관에 자리를 잡게 되어 이들에게서 배운 학생들도 베를린으로 유학했다. 예를 들면 아베 가스코, 미야우치 시즈요코는 도쿄음악학교에서 레오니트 크로이처에게 배운 후, 베를린 뮤직호호슐레에 합격하여 스승의 모교에서 유학 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레오니트 크로이처가 1920년대 아직 베를린 뮤직호호슐레에 재직하고 있었을 때 배운 유학생도 있는데, 오이다 게키치(1926~1928년 유학)는 정식학생으로, 이토 요시오(1928~1930년 유학)는 슈테른 콘서바토리에 다니며 크로이처에게 개인 레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⁵⁸ 또, 사와사키(이구치) 아키코는 1932~1933년 베를린 뮤직호호슐레에서는 바이쓰에게 배웠고, 귀국 후에도 크로이처의 제자가 되었다. 성악 분야에서는 헝가 페츨트에게 배운 야나기 가네코가 1929년 베를린에 단기 체류하면서 음악공부를 했고, 마르가레테 네트케-뢰베의 제자 히라하라 스에코는 1938년 베를린 뮤직호호슐레에 합격하여 성악을 전공했다.⁵⁹

다른 한편, 베를린에서 유학 한 이구치 아키코가 전후 도쿄음악대학에서 이노시타 요코(井下洋子), 또 스기타니 쇼코(杉谷昭子) 등을 가르쳤고, 이 제자들은 다시 독일로 유학을 갔다. 즉, 독일음악가에게 배운 베를린 유학생은 귀국 후에 일본의 주요 음악교육기관(특히 도쿄음악학교)에서 제자를 양

57 도쿄음악학교의 교수진에 대해서는 김지선, 「근대시기 일본의 음악학교에 유학한 조선인: 도쿄음악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167쪽 참고.

58 크로이처 못지않게 존경받았던 피아니스트 레오 시로타도 나가이 스스무(永井進), 소노다 다카히로(園田高弘), 도요마스 노보루(豊増昇) 등 일본의 뛰어난 피아니스트를 다수 육성했다.

59 망명 음악가들이 일본에서 활동한 연구에 관해서는 이경분, 「독일제국권에서 일본제국권으로 온 망명음악가 연구」, 『국제지역연구』 23권 4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4, 1~36쪽 참고.

성했고 그 제자들이 전후에 다시 독일로 유학을 가는 현상이 증가하면서 일종의 회로가 형성되었다.⁶⁰

특기할 것은 1930년대 초부터 독일 곳곳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성행했고, 프로이센 예술아카데미 교수직에서 자진 사퇴해야 했던 유대인 작곡가 쇤베르크(Arnold Schönberg)를 비롯하여 쿠르트 바일(Kurt Weill), 한스 아이슬러(Hanns Eisler), 지휘자 브루노 발터(Bruno Walter), 피아니스트 아르투르 슈나벨(Arthur Schnabel), 첼리스트 에마누엘 포이어만 등이 망명을 해야 했다. 독일 음악계에서도 히틀러의 독재를 피부로 느끼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지만, 일본학생의 독일 유학을 막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즉 나치 제국의 유대인 차별과 유대인 음악가들의 망명에도 불구하고, 일본 음악유학생들에게 베를린의 뮤직호흐슐레는 여전히 ‘꿈의 학교’였고, 독일의 이미지도 부정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예를 들어 도쿄에서 크로이처에게 배운 미야우치 시즈요코는 1938년부터 1939년 9월까지 1년 반 정도 베를린에서 유학했는데, 히틀러에게 감동했다고 고백한다. 히틀러 사진이 베를린 시내 곳곳에 걸려 있는 것을 보면서 부정에서 긍정으로 독일을 이끈 “히틀러의 발전법을 획득하여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회고한다.⁶¹

반면, 소수의 일본좌파 유학생들은 1933년 히틀러가 좌파세력을 노골적으로 핍박하는 것을 보고, 폭력적인 나치의 정체를 일찌감치 파악할 수 있었다. 나치 반제그룹에 소속된 문학비평가 가쓰모토 세이이치로(勝本清一郎)는 베를린에서 일어나는 유대인 핍박에 대해 「유대인수난견문기」(ユダヤ人受難見聞記)를 『중앙공론』(1933년 7월호)에 게재하였다.⁶² 살기등등한 나치의 핍박을 직접 느낀 그는 1933년 말 귀국한다. 1930년대 중반이 되면 베를린에서 좌파 일본유학생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된다.⁶³

60 태평양전쟁으로 음악 유학의 길이 차단되었지만, 전후 복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1950년대에는 다시 일본의 학생들은 독일로 음악 유학을 떠났다.

61 和田桂子, 「宮内鑽代子: 피아니스트의青春」, 333쪽.

62 勝本清一郎, 「左翼勉強」, 和田博文, 『言語都市・ベルリン: 1861~1945』, 274쪽.

63 물론 독일에 남는 경우가 있지만, 전향하여 재독 일본대사관 직원이 되거나, 요미우리신문사 특파원

하지만, 이러한 좌파 지식인들과 달리 음악유학생의 성향은 대체로 미야우치처럼 나치독일에 무비판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독일 음악’과 ‘베를린 뮤직호호슐레’에의 동경은 히틀러와 나치의 비인간적인 차별과 폭력적인 정치를 보지 못하게 하고 무비판적으로 찬양하는 행동을 초래한 듯하다.

물론 나치제국 초기에는 대다수 독일인도 나치가 끔찍한 유대인 학살을 계획하고 실천할 ‘범죄집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일본 음악유학생들이 나치의 정체를 꿰뚫어보지 못했던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비인륜적이고 야만적인 나치제국의 정체가 밝혀진 이후에도 나치제국시기 독일 유학을 했던 일본음악인들은 『음악지우』(音樂之友)의 1950년 4월호 「독일음악을 말한다」(ドイツ音楽を語る)라는 좌담회에서 보듯이, 나치제국의 ‘왕성하고 풍부했던’ 음악생활에 대해 선망의 말들을 쏟아놓는다.⁶⁴ 좌담회 참가자는 1934~1937년 비인에서 유학한 사카 게이세이(属啓成), 베를린 뮤직호호슐레에서 유학한 사카모토 요시타카 그리고 미야우치 시즈요코였다. 망명한 유대인 독일음악가 쇤베르크, 브루노 발터, 슈나벨, 에리히 크라이버(Erich Kleiber) 등을 언급할 때도, 나치제국과 협력한 작곡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지휘자 푸르트벵글러, 카라얀, 멩겔스베르크, 아벤트로트 등을 거론할 때에도, 아무도 나치제국의 유대인 음악가 핍박이나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 힌데미트에게서 작곡을 배웠다는 사카모토 요시타카는 히틀러의 비난과 나치의 압력으로 결국 1941년 미국으로 망명해야 했던 자신의 스승 힌데미트를 이 좌담회에서 아예 언급조차하지 않는다.

및 국책통신사인 동맹통신사(同盟通信社)의 베를린지국장이 된 멤버도 있었다. 加藤哲郎, 『ワイマール期ベルリンの日本人: 洋行知識人の反帝ネットワーク』, 12~13쪽.

64 「ドイツ音楽界を語る」, 『音楽之友』1950/4, 34~49쪽.

7. 끝맺으며

본 논문은 지금까지 연구된 적인 없는 일본 음악유학생들의 전공과 출신지, 유학 기간 등을 베를린 예술대학의 아카이브에 보존되어 있는 일차 문서와 독일어연구소의 문서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안도 아쓰코, 모로이 사부로, 시모후사 가쿠조, 야마모토 세키로, 아베 가스코, 구로사와 아야코, 도야마 쓰야, 사카모토 요시타카, 후쿠이 나오히로 등등 동아시아에서 온 유학생 중 일본 음악유학생이 가장 많았다. 상하이와 서울, 칭다오와 베이징 및 난징에서 온 몇몇 학생을 제외하면 일본인이 압도적이었다.

이처럼 세계적인 베를린의 음악교육기관에 일본인이 대거 유학하게 된 것은 1930년대였다. 제1차 대전이 끝나고 1920년에서 제2차 대전이 발발하는 1939년까지 정식학생으로 등록된 총 36명 중 23명(뮤직호호슐레 등록생)이 1930년대에 유학했다. 이는 일본에서 음악교육을 받은 후 바로 베를린에서 유학할 수 있는 수준으로 1930년대 일본의 음악교육이 한 단계 상승했음을 암시한다.

다른 한편, 나치의 유대인 피습과 박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유대인 음악가가 독일을 떠났지만, 일본음악가들은 ‘음악의 나라’ 독일로 유학을 갔다. 아이러니한 것은 크로이처나 프링스하임처럼 독일에서 살기 힘들어 일본으로 망명한 음악가들이 제자들의 독일 유학을 막지 않았던 것이다. 더욱이 능력 있는 음악가들의 망명으로 독일음악 교육기관이 큰 타격을 입었고, 자유로운 예술정신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음에도 독일 음악교육의 권위는 부정되지 않았다.

이처럼 독일에서는 유대인 음악가들이 반유대적 차별과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국으로 떠나고 있었고, 나치제국이 황색인종에 대해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음에도 일본 음악유학생이 독일의 인종정책에 아랑곳하지 않고 유학을 갔던 것은 일본 음악인들의 ‘비정치적 경향’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겠다. 1933년 나치의 공산주의자 핍박으로 일본인 좌파 유학생들은 모두 귀국하거나 프랑스, 소련 등으로 피신하면서, 반정부 일본유학생들이 사라진 대

신, 1930년대 중반부터 점차 친정부적인 일본 유학생들이 주류가 되었다.

독일에서 망명 온 유대인 음악교수들은 원하던 원하지 않든 나치에 반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지만, 이들에게 배운 일본 음악유학생들은 나치제국과 일본제국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 한쪽에서는 나치제국에서 피신하는 망명음악가들의 대열이 줄을 이었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반대방향의 나치제국으로 가는 일본 음악유학생들이 있었다. 이들은 어떠한 모순도 느끼지 않은 채, 음악이라는 매개를 통해 일본제국과 나치제국을 이어주는 하나의 회로를 형성했다.